

교회와 호스피스 봉사

이 중 석 (광주c.c.c.사랑의 호스피스 대표)

사랑의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알게된 환자는 Y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악성 뇌종양이었고 그때부터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마지막 과정을 집에서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되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호스피스 케어를 통해 통증이 완화되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한 말 가운데 자기는 지금까지 늘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해 교회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에 대해 목사님이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K할머니는 불교와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있던 분으로 어느날 배가 심하게 아파서 광주에 있는 큰아들 집에 머무르시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채장암 말기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집에 돌아와 계시던 중 교회 집사님이셨던 며느리의 부탁으로 심방을 갔는데 처음에는 무슨 목사가 우리 집에 왔냐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시는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다음주에 집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집에 와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인즉 '너희 교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쫓 빼 가버렸어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심방을 갔을 때는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 계셨고 사영리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약 3개월 동안 사랑의 호스피스 팀들이 이 할머니를 섬겨드렸는데 나중에 병상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한번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휠체어를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휠체어를 가져다 드렸는데 휠체어 타고 교회 나오시기로 한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K할머니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을 제외한 모든 자녀들이 믿지 않는 집안이어서 장례문제도 힘들었을 텐데 할머니께서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인도해 주시라고 유언을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기독교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 외에도 호스피스 봉사를 통하여 임종 말기 과정을 겪는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된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호스피스 봉사 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호스피스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해왔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는 물론 많은 교회들이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봉사팀을 조직하여 교회 교구 성도들과 교회 주변 지역에 있는 임종 말기 환자들을 위해 전인적으로 돌보는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선고받고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로서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이 약 3~6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시한부 말기환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보아 줌으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돌보아주는 활동이 호스피스인데 이일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18일에 20병상의 광주기독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오픈하게 되어 C.C.C.사랑의 호스피스와 협약을 맺고 자원봉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조직된 10여개의 교회에서 이일에 참여하게 됨으로 교회들의 호스피스 사역에 가속이 붙을 것 같아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기는 이 민족의 모든 교회마다 호스피스 팀들이 조직되어 고통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김으로 인해 잃어버린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해들을 수 없는 죽음을 앞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로 등록된 기관

☪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호스피스

- 주 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495-25
- 대 표 : 임재호
- 전 화 : 063) 650-1818
- 팩 스 : 063) 652-0308
- 이메일 : ssarang@hanmir.com

☪ 개인회원

- 김인자
- 이희순
- 한춘자
- 장영분